

# 축제 뒤에도 끊이지않는 발길...장성의 가을동화 계속된다

황룡강 노란꽃잔치 끝났지만 관광객 잇따르며 관광명소 자리매김  
장성호 수변길·옐로우 출렁다리·필암서원·백암산 등도 관광 특수

100만이 넘는 방문객 수를 기록하며 대성공을 거둔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10월 5일~13일)가 지역 관광산업과 경제 성장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축제가 폐막한지 3주가 지났지만 황룡강에는 여전히 가을꽃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장성호 수변길은 주말마다 평균 5000여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필암서원에도 꾸준히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등 지역 전체가 활기를 띠고 있다.

## ◇ 노란꽃잔치 100만 찾은 황룡강은 관광명소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지만 장성 황룡강의 가을꽃은 개화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곱다. 노란꽃잔치 이후에도 황룡강을 향한 발길이 이어지는 이유다.

주말인 지난 2일 황룡강에서는 백일홍과 핑크블리 앞에서 기념사진을 남기려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을 만날 수 있었다.

과거 이 곳은 그저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된 강변에 불과했다. 군은 황룡강의 국가정원 지정을 최종 목표로 강 유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해나갔으며 장성군민들도 황룡강 일원에 함께 꽃을 심는 등 거버넌스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덕분에 황룡강은 수 년 만에 관광명소로 변모할 수 있었다.

이 곳에서 열리고 있는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는 2018년 전남도 대표 축제에 선정됐으며 올해에는 가을태풍으로 인한 일정 단축에도 불구하고 100만이 넘는 방문을 기록, 대한민국 대표 꽃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장성군은 이번 축제의 성공 요인으로 관람객의 편의 증대와 먹거리 개선을 들었다.

장성역과 황룡강 구간을 10분 간격으로 순회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해 KTX를 이용한 외부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였고, 주말대인 공설운동장 인근 도로를 확·포장하고 주차장을 늘렸다.

또 메뉴의 종류와 질, 가격 등을 고려해 마련한 음식부스들이 방문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축제에

참여한 향토음식점과 푸드트럭은 축제기간 동안 일찌감치 식재료가 동이 나는 등 ‘대박’이 났다.

이와 함께 축제장의 열기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화폐인 장성사랑상품권을 발행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장성사랑상품권은 축제장뿐만 아니라 장성군에 등록된 1000여 개 점포에서 향후 5년 간 사용이 가능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관광객들이 장성에서 소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했다.

이러한 전략은 축제기간 동안 현장에서만 2억 6000여만원의 상품권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적중했다.

## ◇ 장성호 수변길·필암서원·백암산 등 인기

노란꽃잔치의 성공은 관광산업에도 활기를 불어넣었다. 황룡강을 찾은 관광객들이 옐로우시티 장성의 다른 관광지로도 방문을 이어간 것이다.

특히 장성호 수변길과 옐로우 출렁다리는 주말과 공휴일엔 5000여명이 찾는 등 특수를 누리고 있다.

웅장한 규모의 장성호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장성호 수변 나무 데크길은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하기에 제격이며 경사가 완만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걸닐 수 있다. 또 데크길을 따라 20분 정도 걸으면 짜릿한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옐로우 출렁다리를 찾을 수 있는데 호수의 절경을 오롯이 감상할 수 있는 관광 핫플레이스다.

군은 향후 제2출렁다리를 개통하고 ‘물 위의 쉼터’와 카페숍, 매점 등 편의시설을 조성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장성호 전체를 잇는 수변 백리길을 조성하고 호수 양쪽을 횡단하는 출렁다리도 건설할 계획이다.

필암서원 역시 주목받는 관광지로서 부상하고 있다. 장성 필암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발표된 것은 지난 7월. 이어 9월 서울에서 열린 ‘한국의 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식’에서 유네스코의 인증서를 수령한 군은 필암서원의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전담해설사를 상시 배치하는 등 방문객 맛을 위한 준비를 추진했다.

지난 10월 23일에는 필암서원에서 자체적으로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을 갖고 등재 선포와 김덕수



지난 주말 황룡강 노란꽃잔치가 폐막한지 3주가 지났지만 황룡강 주변에는 가을꽃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장성군 제공)

사물놀이 등 축하공연도 진행했다.

군은 필암서원이 인류의 유산인 만큼 문화재청의 지침에 입각한 철저한 보존·관리와 함께 국내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는 관광명소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11월 들어 서서히 물들고 있는 백암산의 단풍을 보기 위한 방문도 줄을 잇고 있다.

백암산의 품에 안긴 천년고찰 백암사는 얘기단풍으로 유명해 매년 가을 나들이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며 백암산 백학봉은 등산 애호가들 사이에서 ‘명품 코스’로 잘 알려져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필암서원, 그리고 장성호 수변길과 황룡강은 장성군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소중한 관광자원”이라며 “KTX 장성역 재정차로 인해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게 됐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옐로우시티 장성의 독보적 콘텐츠들 각종 공모 선정·수상 등 풍성한 결실

황룡마을 ‘마을이야기 박물관’ 대상  
매니페스토 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옐로우시티 장성이 독보적인 콘텐츠로 각종 공모에 선정되고 상을 수상하는 등 풍성한 결실을 맺고 있다.

장성군은 ‘2019 전라남도 마을 이야기 박물관’에서 장성 황룡마을이 박물관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공모와 시상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실의 배경에는 장성군이 국내 최초로 창의적인 컬러마케팅 기법을 도입해 도시를 생생하게 채색하고 있는 ‘옐로우시티’가 있다.

옐로우시티는 군의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흐르는 황룡강에서부터 비롯됐다.

황룡강은 황룡 ‘가운’이 밤마다 마을 사람들을 몰래 돕는다는 전설을 지니고 있는데 군은 이를 발전시켜 ‘옐로우시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황금을 연상시키는 노란색은 부(富)를 상징하며 군은 ‘군민이 행복한 부자 농촌’을 이뤘다는 목표 아래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장성의 콘텐츠는 지난 9월에 열린 ‘2019 전라남도 마을 이야기 박물관’을 통해서 그 우수성을 공인받았다. 황룡강의 전설을 주제로 참여한 장성 황룡마을이 박물관 최고상인 대

상을 수상한 것이다.

장성군은 7월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제10회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초고령분야 1위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토방·낮추기 사업, 효도권 지원사업, 공공서비스 센터 누리타운 준공,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등 군의 독보적인 노인복지 정책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두석 군수

앞서 군은 2015과 2017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약이행 분야와 도시재생 분야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군은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국농기계 임대사업소 평가에서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상사업비 3억원을 받았으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한 ‘2019년 로컬푸드 안정공급 기반구축 지원사업’ 공모에도 전남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19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에도 선정되면서 군민이 행복한 농촌건설이라는 군정방침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울긋불긋 물든 백암사의 가을



장성호 수변길 찾은 관광객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 062-412-2800

#### 자연장의 장점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